

發行所 福音新聞社
東京都新宿区戸塚1-551(〒160)
電話 03(202)5398番
發行人 崔京植・編集人 金君植
毎月1回 15日発行 購読料 1部20円
昭和38年9月20日第3種郵便物認可

福音新聞

THE GOSPEL NEWS

在日大韓基督教會
宣教70年을 향한 標語

1. 教會에 革新을!
2. 社會에 變革을!
3. 世界에 所望을!

“解放神學”의 宗敎教授來日

總會招請으로、各地方研修會인도



J·H 權 박사

미국의 저명한 黑人운동의 지도자인 J·H·콘교수(유 나온신학교 유리학 담당)가 오는 5월 7일 來日한다. 解放神學 黑人神學과 黑人과 위들의 저술로써 세계 교회에 이르기까지 알려진 콘교수는 우리 총회의 교육국 회의 장기 교회 지도자 연수회에 참석하여 關東地方會를 비롯하여 각 지방의 중심으로서 연수회를 인도하게 된다.

그사이에는 본국도 방문할 예정이며 그의 저술은 일본에도 널리 알려져 일본교계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J·H·콘 박사 일정표

5월 7일 12일 關東地方 京神學大學、國際基督教大學에서 강연. 8일부터 9일 關東地方指導者研修會 於우타 센터 9일 밤 NCC 주회 강연과 심포지움 於키리스토教會館. 10일 교도地域시찰. 11일 26일 歸國.

12일 14일 中部地方 名古屋로 이동. 13일 밤 中部地方連合會에 於名古屋敎會, 14일 韓日合同集會에서 강연.

14일 19일 關西地方 京都로 이동. 15일 밤 日合同集會, 16일 17일 關西地方指導者研修會 於宝塚縣想の家, 18일 京都敎會, 18일 밤 KCC에서 연하예배.

19일 21일 西南地方 福岡로 이동. 19, 20일 西南地方指導者研修會, 21일 韓日合同集會. 23일 25일 韓國 서울 26일 歸國.

콘박사의 프로필

「解放의 神學」에서 크리스토퍼의 黑人性은「受肉したもつた」一者としての彼の規定を明らかにする。彼において神は抑圧された人間となつたまゝ、かくて全き人間性の成就は彼の存在と一致することを啓示した。人間は奴隷として造られたのではない。そして、キリストにおける神の現われは、人間に自由の可能性を提供する。黑人となつたもつたことによつて神は、黑人性がこの世が言つてゐるものではないことを開示した。黑人性は、神性も人性も白人の諸規定の中にはない。

各地方研修會개최등

총회任職員會에서 處理된 案件들

- 본회의 임직원회가 지난 4월 8일 神戶敎會에서 열려 많은 案件들을 처리하였다.
- 처리된 案件은 다음과 같다.
- (1) 地方會指導者 研修會의件
- 講師 J·콘 박사(美國 유나온神學校敎授, WCC 研究委員)
- 時日 5월 7일~25일
- 關東地方 5월 7일~12일
- 中部地方 5월 12일~14일
- 關西地方 5월 14일~19일
- 西南地方 5월 19일~21일
- (2) 美國과 亞細亞關係宣敎會議에 崔京植 총회 副議長로 參加키로
- 時日 6월 12일~14일 於 뉴욕
- (3) JNCC 總會에 崔京植 총회 副議長로 參加키로
- 時日 6월 17일~19일 於 뉴욕
- (4) 總會事務所와 RAIK事務所合辦의件 5월부터 實施하기로
- (5) 札幌傳道所 李聖柱 목사에게 宣敎協力의件 李 목사를 派遣한 김리교의 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계속 본회의가 지원하기로
- (6) 洪鍾萬宣敎師의件은 入國手續中임 ②韓在秀 목사의北部敎會 赴任을承認 ③李炳球, 金德化, 金炯卓, 鄭榮禧諸宣敎師 再任承認
- (7) 關山傳道所增築補助要請件 250萬圓中 100萬圓要請 財務局에 回附함
- (8) 特別獻金件 特別 海外宣敎事業을 위해 7월말까지 80萬圓獻金키로. 內訳 ①WCC人種差別撤廢, ②CICA의 亞細亞宣敎을 위해, ③韓國神學校, ④韓國NCC, ⑤日本NCC, ⑥教育局活動費不足金30萬圓을 (8)特別報告 今年度에 2名의 神學校入學者가 있음. 金鍾順氏(北部교회) 關西聖書學院, 金永秀氏(釜港교회) 四國 기독교大學에

厚木에 40명 모여

關東地方中高生春季學校



關東地方春季學校에 참가한 中高生들

關東지방의 教育界에서는 지난 3월 26일 厚木의 七沢溫泉에서 中高生春季學校를 개최하였다.

금번의 中高生春季學校는 關東지방 각 교회에서 中高生과 교사 약 40명이 참가하여 열렸는데 과거에 夏季학교로 개최하던 것을 이번부터는 春季 학교로 가지게 된 것이다.

이번 春季학교에서는 국어, 역사,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재미있는 3일간을 보냈는데 中高生들 자신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中高生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在日韓國인으로서의 고민을 서로 교환하는 등의 의의가 보였다.

關東지방의 教育界에서는 지난 3월 26일 厚木의 七沢溫泉에서 中高生春季學校를 개최하였다.

금번의 中高生春季學校는 關東지방 각 교회에서 中高生과 교사 약 40명이 참가하여 열렸는데 과거에 夏季학교로 개최하던 것을 이번부터는 春季 학교로 가지게 된 것이다.

이번 春季학교에서는 국어, 역사,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재미있는 3일간을 보냈는데 中高生들 자신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中高生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在日韓國인으로서의 고민을 서로 교환하는 등의 의의가 보였다.

KN 金觀錫 총무被檢

援助資金不正使用혐의로

서울지검은 朴炯圭 목사(제 일교회 목사,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위원장)와 趙承赫 목사(기독교교정의구현전국성직자대신무국장)를 7일 밤 연부상 橫領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9일에는 金觀錫 목사(NCC총무)를 연부상 橫領혐의로 權호景 목사(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위원장)를 연부상 橫領과 暴力行爲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구속 영장은 서울 지검 공안부 李在權 검사가 청구, 서울지법 李尚遠 판사가 발부했다.

金觀錫 목사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면 73년 1월부터 74년 말 사이에 西德世界基督教 福音선교회로부터 받은 수도권 4개 貧民地域援助金 1千九百餘萬圓을 横領했다는 혐의다.

지난 3월 30일 대한예수교장로교회 도시선교선교중앙위원회는 도시선교선교의 기본자세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경제발전과 빈부격차, 고층빌딩과 파자촌, 기계분업과 인간소외, 공업화와 공해문제 등 수많은 부조리 현상이 각 계 각층에 만연하여 사회와 교회에 적신사라고 있다.

교회는 이런 상황속에서 세수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난을 선포하는 백성들을 향해 해방을 선포함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야 한다. 이와 같은 오늘날의 교회의 선교의 기본 자세에서 제언선에서 환하여서는 朴炯圭 목사를 비롯한 도시선교선교위원들과 이사들을 横領한데 있어 이적 물질적 자원을 지원하는데 애썼다는 노력을 해온 NCC총무 金觀錫 목사를 구속했다는 사실은 교회의 부패를 깨우치는 당국의 조치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금번 이사단이 가져오는 그배후의 음모를 분해하며 밝은 내일을 바라보며 주의 빛을 따라가고자 한다.

株式會社朝日鑄工

社長 平山浩造

東 二 鳳 市 堺
電話 0722 (71) 1561

退院의 感謝와 인사말씀

陽春佳節에 天父의 恩惠中 貴敎會發展과 敎友의 平康을 삼가비오며 靈肉間生活에 難關이 많을때 하나님의 祝福으로 克服하시기를 兼願합니다. 不肖敎生 解放以後 30年間 健康한 몸으로 東奔西走하던中 去年 9月末 不意의 病으로 生後 처음 7個月間入院하게 되어 우리 總會는 물론 國內外各敎會와 敎友들에게 많은 恩惠를 끼친과 物心兩面으로 過分한 도움을 받게 됨을 衷心으로 感謝하며 退院을 반겨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祝福과 여러분들의 祈禱의 德祐으로 지난 3월 28日 完全退院하게 되었음을 衷心으로 感謝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장한 余生을 忠誠으로 더욱 奉仕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指導와 鞭撻을 바라오며 늘 加禱하여 주심을 바라면서 거듭 거듭 感謝를 드립니다. 遠近을 不顧하고 訪問하여 주신 분과 많은 慰問金을 보내주신 敎友와 親友들에게 일일이 拜訪謝禮치 못하고 우선 書面으로 인사 드림을 寬容하여 주심을 삼가 바랍니다.

一九七五年四月一日

在日大韓基督教會 京都敎會會長 老在日韓國基督教會館々長 在日本韓國YMCA理事長 金錫 淸 拜謝

総工費が1億余円

横浜教会と保育園新築落成式



橫濱教會와 社会福祉法人
르다會 打越保育園々舍의 献堂
式이 지난 3월 23일 오후 4시
金君植목사의 사회로 내빈약
百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
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선교를 담당한 兎充
台 목사(가 병으로 入院中이여
서 兎充을 崔京植목사가 兎
목사의 「우리의 눈으로 본
이적」이라는 제목의 선교를
대독하였다.

총회를 대표한 李仁夏총회
장의 인사에 이어 駐橫濱總
領事館의 李起馨領事, 橫濱市
를 대표하여 橫溝寿男民生部
長, 橫濱市議會議員 広瀬礼子氏,
橫濱市中央区社会福祉協議會々々長
御園御法氏, 캐나다교회를 대
표하여 하인드만 선교사 등
많은 축사가 있었다.

橫濱교회는 一九一七年 東
京교회 朴鍾純목사의 전도로
시작되어 一九五二年에 대당
을 세운 이래 선교활동등전
개해오다가 七四년에는 保育
園설치를 결의하고 신축공사
에 착수하여 금번의 献堂式
을 보게 된것이다. 대지 2
10坪에 三층 건물로 총용
1억4백만원이라 한다

全国幹部研修会開く

箱根で、婦人会全国連合会

雑音の都心地を離れ、今まさに新緑に衣替えせんとしている静寂な宿根の一角、天城山荘で東は東京、西は福岡より集まった約五〇名の老若を問わない婦人たちが、二泊三日の研修会を開いた。*“女性と社会”*の主題に沿って、日本NCC総幹事中島正昭牧師がその世界的視野に立った経験を活かし、教会と社会、女性について語った。

第一日は地方別に婦人会の活動の現状と展望が発表された。二日目には、聖研のあと、副題（総会全国連合研修会主題——同胞の解放を指向する教会）に基づいて、分けられた四つの分科会（教会、地域社会、家庭、学校）で現状分析と今後婦人かとり組まねばならない問題を整理した。

最終日には、総会総務を迎え、宣教基本政策の再認識と総会の機構などについて活発な質疑応答がなされた。これらのプログラムに前後して本国の教会婦人の実状、カナタ長老教会での初代女長老の証などが紹介された国連の「国際婦人年」に便乗したわけではないが、グローバルな広がりの中でのおわれれ婦人の歩みを把握、推進して行く意気込みが参加者ひとり一人にみ

日人들이 참회의 눈물

『殉教譜』를 發刊하고……

李 賜 禮

綜合討論會の前の地方別分団では、各地方がかかえている独自の婦人會の課題をその地方で最善をつくし解決につとめること、全國的な連帶の中で發展させるものは相互に提起すること

第一世は騒々しい子供のざわめきと慣れない日本語の公けの使用という二重の苦しみにも耐え、溫い目で若い人々の發言を見守り、祈りで勵ました。若い二世は、家に残した上の子たちを思

東亜 8월호에 제1회 년회선 심화 현상 모집 광고가 발표되었었다. 나는 이 광고물을 읽는 순간 갑자기 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문서전도가 급하다. 빨리 쓰기 시작하자 내마음속에 계속 느껴지는 주님의 음성들을 들었다. 나는 이문제를 두고 일주일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여 이기회를 통하여 옛날 아버지과 같은 부랑천년들이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듯이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 6개월동안 새벽마다 주님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평양 신학교 1회졸업, 한국 초대교회주基豐 목사)의 일대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一九〇七년에 제주도에 신

乳飲み子を背負いつつ當面する幾多の問題に信仰的热情をかけていた。この成果は今後、婦人たちが各々の持場で活きた証したてる中で実ることを信じ、そのために祈りをあつくせざるを得ない。

통하여 하나나게 영광을 뿔었다. 특히 원남전서에서 읽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고 의어진 청년의 편지는 평생에 잊을 수가 없다. 나는 곧 이책을 한국어로 인쇄하여 배부했다. 그후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七四년 7월에 神戶 루터神學校의 초청으로 일본에 오게되어 재일한국교회와 일본교회를 방문하며 아버지의 간증을 했다. 일본교인들의 참회의 눈물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였다. 石屋川교회에서 말한때 일본에서 유명한 明石愛老院의 원장 田村사가 가까이 와서 옛날 우리 일본사람들이 한국 原 제암리 교회에 석유를 싣러 모두 হাস았읍니다. 이 무서운 죄를 우리 일본사람들은 어떻게 사함을 받아야

《私の信仰体験》 6・25動乱を通じて (3)

李 大 京



六月の農村は、田植にいそがしい農繁期である。田植の手伝いのため、学校から田舎に帰っている私の耳にきこえてくるニュースは、あの韓国動乱勃発の知らせであつた。高校2年に在学中の私には、戦争が起つたということには別に驚きをしないまま、田舎の仕事にはげんでいたのである。2、3日後に急に学校から、早く登校せよ、との電報がとどいたのである。

学校の所在地である全羅北道全州に着いてみると周囲の情勢が非常にあわただしく動き回っている。伝わってくるニュースはソウルが北韓軍によって占領さ

れた、ということである。その事実を知ってから韓国亂動勃発の現実が実感として感じるようになり、私も友人と共に軍の呼びかけと学校当局のすすめによって軍門に入ったのであるが、その当時、私の年令は十九才であつた。

学徒兵として入隊はしたものの、武器扱うことも知らない私が学生服を着たまゝ避難民と共に大邱に着いたのは、34度を越す盛夏の時期であつた。避難の群眾を思ふ時、私は今日のベトナム戦争で何百万という避難民を思はずにはいられないのである。当時の列車には屋根までごらさがつての避難である。全州から順天までのトンネルの中で列車が動かなくなり、数百人の中へ学徒兵が「望死死」する光景をどうするか。戦争の悲劇は体験した者以外に唯がその痛さを感じることができたらどうか？

今のベトナムの状況を考える時、私は生々しく、25年前の歴史をふりかえって、わが祖国に再び、あのような悲惨な戦争が起らないことを神に祈らずにはいられない。それゆえ私は、韓国に駐留しているアメリカ軍の存在を高く評価するのである。いわゆる革新的な考えをもっている連中は、アメリカ軍の撤退を望んでいるかも知れない。しかし、一九五〇年六月二十五日の歴史を思い起すならば、そのような考えこそ、とんでもない偽りの平和主義者ではない。私は軍事評論家のつもりはないが、ただ、このような甘い平和主義の考え方が、あのような動乱を引き起こし、三百万近い尊い生命を失なわせたのである。25年前の歴史的事実が証明しているのである。今日も、アメリカ軍の撤退を叫ぶ北韓共産党を始め、いわゆる日本のマスコミは、25年前の甘い夢をもう一度見る

ために叫ぶだけのことであり、私には思われてならない。

さて、私は八月十五日に初めて戦線に出動したのであるが、戦争が勃発してから二月月しかたっていないのに、その頃の韓国は釜山と大邱しか残ってはいなかったし、もう絶望としか言いようがない状態である。あのマッカーサー元師の決断がなかったとしたら今日の大韓民国が存在したであろうか！

その背景に歴史を支配し、又摂理するわがヤハウェ神に感謝しなければならぬ。もう一つは、六・二五韓国動乱を通じて韓国教会は、この動乱を神の裁きとして受けとめたことであった。それは、度長老教会が、二つに分裂する課程における血生ぐさい争いであつた。このように教会が分裂するきたくない争いに對する神の裁きとして教会は憤剣に受けとり、又悔い改めの運動が起つたことである。

それは、六・二五動乱を通じて受けた変難は言葉ではいい表わせないものがある。しかし、今日の韓国の教会はどうだろうか？ イエス、キリストが十字架にかけられる前に行った教会の一致の願いをよそに分裂に分裂をかさねている。神学的な相違によって分裂されれば、又そこには救いはあるであらう。しかし、メソジスト教会の分裂に見る権威と名譽、それに地方色によって色わけられている事によって色わけられている事を否定することができだろうか？ 私が長老教神学校に入学して予科2年を修了して中退したのもその一つの原因は、地方色によるみにくい争いである。

神よ！どうか韓国教会ののみにくい争いをゆるしたまえ

つづく

(西新井教会牧師)

아버지의 행적을 아려서
버지에게서 들은대로 기록하
시작했다. 一九四三년 6월
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일본 경찰의 모진 고문에 못
이겨 마침내 순교한 아버지
의 처참한 모습을 어린 시절
절 특독하게 본대로 엮어내
려갔다.

원고 제출 마감일인 六五
년 2월에 「殉教譜」라는 제
목을 붙여 동아일보사로 보
냈다. 그해 8월에 응도자배
98명중 우수작으로 당선되었
다는 통지가 왔다. 그리고 계
속 新東亞 지상에 게재되었
다.

약 1개월이 지나니 약배통
가량의 편지가 왔다. 이편지
를 보낸 사람들은 거의가 불
신청년들이었다. 이글을 읽고
나도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
다. 라는 내용의 편지였다.

나는 이편지들을 읽고 너
무 감격하여 눈물의 기도를

물보다가 되었다. 곳곳마다
거 일본인들이 지은 죄에 대
하여 사죄하는 일본교인들의
기도는 불어지지 않고 계속되
었다. 그해 10월에 東京 命の
言葉社에서 「殉教譜」가 日
語로 출판되었다. 주빈께서는
이 출판사를 통하여 日本명예
주의 복음이 전파될수 있게부
을 열어 주셨다.

七五 年 2 월에 命の言葉社の
초청으로 日本명을 다시 받
게 되었다. 초판이 다가가고
「悲しみは榮光に」로 書名을
바꾸어 다시 발간되었다. 하
나님의 놀라운 신 역사는 日
本교회에 계속 일어났다.

住所変更

△總會事務所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丁目
3番18号 日本基督教會館52号
室 (6月1일부터)

住所変更

△総会事務所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丁目
3番18号 日本基督教教会館52号
室(6月1日 부터)

東和食品株式会社

代表取締役 **李 東 和**

東京都江東区永代 2-11-3

不動産業務全般

免許番号・愛知県知事①第5426号

太栄企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金光洙

事務所 名古屋市熱田区八千代通3丁目11番地
(名古屋市中央卸売市場入口南側大栄ビル)
電 話 052(682)1177(代)
自 宅 名古屋市千種区猪高町猪子石原字太田
電 話 052(771)5952



疑いのない事実

も毒がうつらない、とあるように、主を信するものは、毒を飲んでも決して害を受けない（イザヤ11・7-8）。

復活の信仰は、主の復活の事実を確かにするだけでなく、その恵みの絶大なのは計り知れない（第一テサロニケ5・23、24）

（西成教会牧師）

—를 가졌으나 世代差를 나타내지
아서 一世는 二世를 기르는 것이
마음으로 二世는 一世의 사
랑과 配屬을 충실히 감수하
면서 서로 협조하여 現在와
장래의 女性和 社會문제에
지하계 다투었다. 女性的의 아
주 自由로우면서 進歩의인면
을 볼때 교회 지도자들도이
의미를 배우며 同參해야 할것
을 느꼈다.

2 地域住民을위한 集會를
川崎地域에서 가졌으나 宗廟

野地域의 反對者은 反對者이고 大陽
體가 있었다. 교회는 同胞의 反
對를 원수시하지 않고 對話
의 場場을 設치면서 福音을 전
달해야 하나 누가 眞正인 권을 用하
도록 해 줄 것인가 우리의 보
다 더 큰 사명을 느낀다.

3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百
주년記念으로 오는 26일 시
참단一행 26명이 온다. 일행은
關東 関西 西南의 教育者들을
지참하고 우리 편에서는 副會

第3841号

株式
会社

加

代表

東京都
電話

東京都足立区西新井本町4-25-12
電話 03(890)0951 番(代)

三月二〇日から始まったT.E.F.（神学教育基金）実践活動を通しての神学教育）に全国から約一〇名の教役者、青年等が集まり、K.C.C.三階で合宿しながら在日同胞の諸問題が濃縮されている猪飼野を中心とした地域学習を行った。

参加した各人は、一日日同胞として、けれども異った個人的な歴史という重みを基盤にもって猪飼野同胞の問題をとらえていったのである。だから猪飼野という自分の住んでいない地域の問題を通して在日という自分の現実の姿を再確認することができ、そのような自己確認を通

して猪飼野同胞の問題をとらえてゆくことができたのである。つまり、猪飼野は私そのものである」という自明のことを再認識することによって不完全燃焼を続けていた自分への憤りが湧いてきたのである。

自分に向けられている人間性の差別、抑圧を許していた意味において抑圧者であった自分に対する憤りである。

T.E.F.自体はじめての試みで
 プログラムは試行錯誤のくり返
 しの中で進められたが、その中
 で様々の問題点が浮きほりにさ
 れた。参加者の年令の開きもあ
 った。現代における宣教活動と
 方法論について、何度も討論さ
 れ、家庭訪問を通して、総連と
 民団の対立と確執の厳しい現実
 を身をもって体験したことから
 この現実に対する教会の姿勢が

問われていることを改めて知
 たのである。

私たちは猪飼野で得た各様のの
 体験を各地域で発展させてゆく
 ことを約束し、次のT.E.F.に向
 け、この課題を残して、四月十
 日約二〇日間の共同生活で半分の
 根づいてしまった猪飼野を後に
 したのである。

(水島教会員)

朴
鍾
碩



日立労組ソフトウエア(ソフトと略す)支部は、いま「厳しさは百も承知、覚悟はできている。一步も譲れぬ75国民春闘」のスローガンを掲げ、また組合

員一人一人も作業服の左胸ポケットに「自分たちの生活を守ろう」と記されたバッチを着け力を合せ團結して「春の闘い」に頑張っています。

日立労組は電機労連の傘下であり、日本社会党の左派に属しているとききます。私の勤めているソフト工場は下請会社の従業員を含めて、約二千人の人たちが働き、臨時員、トイレや廊下の清掃するオジャン、オバサ

ンを除いて、すべて組合員になるという、クロウズド・ショツツブ制です。私は四年前、臨時員として雇われたことになっていますが、その期間も過ぎて昨年九月二日、正式所員として入社し、同時に組合に加入しました。労組は組合員から集めた（毎月）の安月給から自動的に天引し組合費を闘争資金として、労働者の権利を守る闘いを前提としています。第一に組合員の生活を

가루샤 JNAC 会長 来訪

日・北美宣教協議會會長 가루사牧師가 지난23日 우리총회를 예방하였다.

가루사會長の 이번의來日의 목적은 오는 6월17・19일에 열리게 되는 J.N.A.C 총회를 앞두고 우리 총회와日本교회와의 의견 교환하기 위한것이듯하다.

保障すること。第二に組合員が安心して各職場で労働できること。この二つを大きな課題にしています。

私が日立労組組合員として日本人労働者と共に「自分たちの生活を守ろう」と主張して闘争に参加するのも、昨年十一月、約一ヶ月にわたって行われた一時金(ボーナス)要求闘争に続いて二度目です。中央執行部は予め全組合員に闘争戦術について全権を執行部に委譲するか否か投票によってコンセンサスを得ます。百%に近い人たちが委譲することになり、交渉が妥結するまで残業、休日出勤、更に戦術強化して十二時間スト(実質半日午後)を行ない全体職場集会場で執行部より交渉経過報告を受け「がんばるぞ」とシプレヒコールを上げて全組合員の意志結集を謀ります。

そして、今年の国民春闘はちょうど統一地方選と重なり、労組は各職場から選出された評議員を通じて社会党公認の立候補者を掲載したビラを全組合員に手渡し、是非投票するように依頼していました。それは、韓国人「在日韓国人に選挙権はありません」というべきであつたか?と思いました。

日立労組は、過去四年間の私たちの闘いを会社側と全く同一視していました。そればかりでなく今日の「日立」があるのも組合のおかげであると自負し、会社側が組合員に不当解雇した裁判において、執行部は積極的

한편 캐나다 장로교회 총무 로버트 목사도 來日하여, 福岡教会, 大阪教會 등을 방문한후 上京하여 横浜教會도 방문하고 본총회 사무실에서 南教会 선교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24일에 귀국하였다.

場にビラ入っていた頃、ある「身障者」組合員は「おまえたちが、こんなことをするから、われわれが迷惑をするのだ」と私たちに怒りをぶつけ、会社側が「彼らのビラをうけと、たな者は解雇するぞ」とうろくし退勤しようとする従業員を列に並ばせて間隔をおいて帰宅させている状況を見ても組合は沈黙していました。こうした御用組合はどこにでも存在していると思います。彼らは「自分たちの生活を守る」ことが「労働者の権利を守る」ことになるわけです。これが一つの日本の「労働運動」の特殊性かもしれません。ここには被差別者の立場になつて「春闘」を考える労働者は無に等しい。私は今後、彼ら日本人労働者と共に「自分たちの生活を守ろう」と叫ばなければならぬでしょう。二千分の一の存在である私は、沈黙したまま彼らの後について行くべきでしょうか? こうしたジレンマを抱えながら「春闘」は中盤戦のヤマ場にかかっています。ちなみに私たちの要求を上げれば、(1)賃上げ一人平均三十・七%。(2)年間総労働時間短縮。(3)インフレ一時金。等、在日同胞とは全く無縁であり、「生活を守ろう」などと言っている暇はない。生活危機は毎日起きている。

동포들의 갈망하는 것과 재일
동포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
음을 정말 사랑하고 現實을
보아야 할 것이다.

京都府知事免許(1)1805号

大発住宅センター

代 表 者 金 昌 業
(鹿 山 清)

〒615 京都市右京区西院西淳和院町22
電 話 075 (3 1 1) 0063

宅建千葉県知事登録(1)第3841号

三信商事株式会社

代表取締役 権 富 仁

本社 千葉県八千代市米本1448—1
電話 0474 (88) 5579・1613番

営業所 千葉県船橋市前原西1—25—18
電話 0474 (76) 6181～2番

食品・薬品包装業

有限会社 **加富利産業**

代 表 者 金 漢 弼

東京都足立区西新井本町4—25—12
電 話 0 3 (8 9 0) 0 9 5 1 番 (代)

金承俊

ここで、聖書の特に、旧約聖書の士師記を通して示唆を与えられたのである。士師とはシヨーフエティームのことであり、裁く、支配する、救うという動詞から来た語で、カナン入国より王政前までに出た指導者たちを指す。つまり、四〇年にも及ぶ苦難と緊張そして興奮の後にイスラエル民族がカナンに住みついて以後の怠惰と弛緩の時代を記している。英国の歴史家トインビーは「歴史の研究」の中で、諸文明の生成、発展、完成、崩壊を解明しようとしているが、中でも、一文明が他の文明に遭

らしい民族のうちの個人であつたか、超自然的能力を持っていたのに、美女デリラに会つて以後は、その能力さへ失われたという反感を與へてゐる。カナンの快樂的文化に犯される以前は、イスラエル民族が、いかに神の力を受けて、偉大であつたかを回顧しながら、ではどうすればいいのかということを書者は示している。即ち、セム人種の宗教に一般的に行われていた習慣である「頭にカミソリを當てない」(一三・五)ということと、カナン主義と混合と妥協をしないということを守り抜くならば、神の力が臨むと著者は考へていたようである。農耕民族の精神と游牧民族精神の内面的、外面的闘争と考えられる。だから、デリラと戀愛中のサムソンの姿とは、きらびやかなカナン農耕文化に浴しつつも、あの荒野を生き抜いた、生き生きとした生き可哀ある生活から魂が抜け

それにひつかると抜け切れぬ自らを失わしめる、そのような文化を示している。イスラエルの二世たちは、一世たちの苦勞や業績を全く知らず、無視して行くのである。(二・一〇)

そういう彼らの生き方はてんでばらばらで全くわがまま勝手であつた(一七・六)そのような生き方の結果は、偶像崇拜と墮落であつた。更に、残酷な復讐、同志打ち、戦争等であつた。この士師記には明白なパターンが見られる。偶像に走つたこと(裏切り)、そこで他民族を通して圧迫せしめたこと(苦難)、民は苦しみのあまり斷食と祈りの叫びをあげたこと(悔改)、そこで、祈りに答えて士師を送り給うたこと(救い)である。

イスラエル民族がアドナイの神に忠実であつた時に幸福であつたが、反逆した時は苦難を受けたという主題が一貫して流れている。これらの話を見る時、

力、悲慘に陥つた男サムソン、彼は恋愛する爲に生まれてきたようなもので、イスラエル民族の栄光どころか恥さらしで何ら優れていないのに何故彼が登場しているのか、無力の彼を見る時、その姿こそ経済的地盤も保障もない僑胞たちが、低利の資金を使えず、干上がつてしまふことが暗示されている姿ではないのか。この点の解決も緊迫している。更に、両国民は運命的に敵対するようににされているのであろうか？

メソポタミヤ(三二・一八)はアラム・ナハライム即ち、川に狭まれたアラムといふのでそうしているがアラムはエドムと間違ひ易い字である。エドムとすると、彼らにイスラエルが苦しめられたとなると、エドムとはエソウの子孫だから生まれながらの絶えざる敵対関係(創二五・二三)となる。又基督教徒を圧迫するローマ人の代名詞がエドムであり、エドム

大國の支配の中にも生きのびてきた秘訣は何なのか？ それは詩篇によく出てくる「主を待ち望め」「私は主に寄り頼む（詩一・一）」であった。幾度罪に落ち、又弱くても、神の中で生き、神に飛び込むことにあった。それがサムソンの悔改めの祈り（士十六・二八—三〇）であり、一切の失敗を償い、個人の完成、民族の完成に連なり、更に歴史を導き給う神は全人類の完成そして神の國の完成へと指し示し、引張り、実現へと具体化しようとする。それがアブラハム、ヤコブと十二部族、モーゼ、第二イザヤ、メシヤなるイエス・キリスト等に直結し、これら以外はその一部分なのである。すると将来は、信仰の線と世族的、社会主義的な勢力との線が接するか、対立するか、衝突する時か感ぜられる。そのことを踏まえ、かつ、今という中間時に、神は、その民族を通して、

骨の髄まで日本化されている僑胞に、民族的美、藝術、文化の偉大さ、先輩の心、文学を悟らせることによって、ブームを起すことによって、心から感嘆の念を呼び醒ませ、個人人を全体的な一つの理念にまでまとめさせる運動を起すこと、継続することである。そういう全体的働きの中で個々人が生き生きと自ら進んで自国語を語り、誇り持ち、民族衣裳をまとい、どんな自らを回復させて行くようにさせるべきである。ここに個と全体、全体と個を生かすことができる。劣等感に悩む者に誇りを持っては無茶である。自分の民族は劣ると思われしめられて、困っているの、心が納得するまで全体的運動が見せつけられないと駄目である。民族を無視した基督者に価値はない。真の基督者は失いつつある自己を回復してやり、その為己を突入させ、虐げられた者の側に立つ

完全に日本人となりつつある。われわれは今後とも対等、協力、共同には積極的に努めよう。しかし、同化、解消、併合にはどこまでも反対しよう。

われわれが将来、自己を保ち消え去ることを好まないならばあらゆる諸要素を抑えて、より大いなる民族を立てて、そこに力を貯えて、突進して行くことを提案したい。つらいことだが韓民族はある地域に結果することだ。朝鮮部落といわれようと汚ないといわれようと、群がり、固まることをやり始めることだ。学校も劣ろうと自分たちの手で全て一から原始に戻ったつもりで、一つ一つ力を合わせることを。個々は弱い。経済力のある者も一時だということを忘れて自らは異なると思ひ上る連中が多いが、とにかく力を結集しなければ駄目だ。嫌なら消えるだけのことだ。消えないというの、やせ我慢、又は、心の影だ

R A I K 情報 (5)

● ひそかにのびる締つけの手
日本政府は去る三月七日、巧
妙なかたちで在日韓国人に対す
る一大弾圧法の一つである「外

国人登録法の改案を、国会に上程した。「許可・認可等の整理に関する法案」というもののなかに、他の法律の改案と一括審議される形で提出されたのである。登録事務の合理化がその改案の目的であるといわれている。しかし果たしてそうなのであるか。かつて入管法の改案が上程された時と同様に、日本政府は今回も法律の合理化、処遇の改善を前面においた主張をしている。しかし、本質的に治安法的性格を持った外録法を単に、登録事務の合理化というだけで改正するであろうか。改正に要する手続きとバク大な費用をかけてまで日本政府が、在日韓国人を主として対象とした外録法を改善するとは、考えられないのである。こうした不信感、は、今まで在日韓国人を対象にして出されてきた法案のすべてが、われわれの日常生活の締めつけに他ならないものであつ

たからである。他国の人權をとかやくいう日本政府は、自国内の外国人に対する人權無視をどう説明しようというのであろうか。

●簡素化にひそむ規制の強化

今回改案されようとするのは

①登録の申請期間が六〇日から九〇日に延期される。この点に関しては特に問題はないと思われる。

②外国人登録証明書が汚損あるいは紛失した場合、現行法では旧登録の残期間に関して行っていたが、今後は交付時から三ヶ年間有効とし、申請回数の手間を省いた。この点もさして問題はないと思われる。

③登録証の記載事項に変更があった場合は、すべて一四日以内に変更登録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が、今後は、氏名、国籍、職業、居住地の地番、勤務所又は事務所の名称および所在地、の五項目のみを一四日

以内に變更登録義務があるとし、その他は登録切換等の申請時に變更登録を行えばよいこととなった。一見緩和されたように見えるが、先の五項目については嚴重にチェックされる恐れが生じたことである。登録原票の記載項目は一七項目あり、そのうち居住地の地番に関しては現行法においても、業務上においても嚴重なチェックの対象となっていた。他の項目の變更をおこなった場合でも罰則は適用されるが、實際業務上、居住地の地番の變更以上に強いチェックをされることはなかった。それは、国法である外国人登録法の登録業務が、本来は国の仕事でありながら、地方自治体に依存せざるを得ないという理由に基づくと考えられる。つまり、法務省は、一七項目すべてにおいて嚴重にチェックし、義務をおこなった場合は罰則を適用して欲しいとしながらも、窓口業務を受け持つ地方

自治体としては、そのすべてをチャックしうる余力がない。そこで居住地の地番のみを厳重にチェックする行政指導が行なわれていたもの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そこで申請用紙の統一化等による事務の合理化とひきかえ、今まで居住地の地番のみを厳重にチェックしたものを、さらに四項目を加え、五項目については、切換、引替交付時において厳重にチェックせよというふうに変更されたと考えられる。さらに、法案のもとになった答申では、記載事項の変更は居住地、氏名、国籍に限定されているのに法案では、答申にない職業と勤務先の名称および所在地が追加された事実を見ると、その意図はおのずと明らかである。つまりは、事務の簡素化に名をかりた規制の強化に他ならない。

●登録事務の中央集権化
改案点④は、外国人登録証の留資格と在留期間に関する変

更（協定水住者にはあまり関係ない）は、今後、市区町村役場とは全く別の入国管理事務所で記載されるということである。これもまた答申にはなく、法案段階で法務省入国管理局によって追加されたものと考えられる。従来は、特定の地域を除き、取り次ぎ申請というものがあり、入管事務所に遠い地区の人は、市区町村役場において変更していた。しかし、これは法文上何らの取りきめもないため、今後実際面においてどう運用されるか余断を許されない。ただ登録事務において入国審査官（国の直轄）が関与するようになってきた点において、さらには、地方自治体における事務等の超過負担の問題とあわせ、在日外国人の規制を国が直接行う。つまり、中央集権化され、国が直接管理することによって、在日韓国人への規制が強められる事はえられる。

静かに消え行きつつある在日僑胞を、しっかりと見つめ、それを己の重荷として担い、自己回復を取り戻してやることが、聖書信仰上に立てて為さるべきことがある。その為には、牧会も社会運動も、両国に働きかけて早く経済的保障、民生の保障をとりつける働きも、混血僑胞の為の働きも、一切のものが必要なのである。ただこれは、宙に浮いたものにならない為に、自己の立脚点をはっきりさせるべきである。私も、あなたも、われわれも韓民族の血を受けた、そこから出てきた者なのだといふ。この明白な事実を充分に悟らせた上で、本人が、どの国民になろうとも、それはより偉大な普遍的な働きに通ずるといふべきである。

われわれの道は險しく遠い。しかし、過去、未来を見つづけるのをしかりとつかんで少しづつ変えて行こう。一世が皆、世を去った時、どうなっていると思うか？ 今の二世たちが去る頃どうなっていると思うか？ 自らの民族の為に自らを切り捨ててしまふこと、何と生き可斐のあることか？ 韓民族の精神を取り戻そう！ 何十回地表が崩壊してもこの精神は又出てくることだろう。それは、あまりにも限定した民族精神でありながら、あまりにもはるかに高尚な普遍的な精神となっているからである。神の創造の喜びの歌声が（創一章）聞こえてくるではないか？ 神の然り、神の喜び、認定の前にとこにニヒリズムの影があるか？ ただ復活の歌声のみ聞こえるだけではないか。

（佐世保伝道所牧師）

本町店 大阪市東区船場中央4丁目1番地
船場センタービル8号館2F281号
電話 大阪(06)251-5444番
自 宅 大阪市東成区東小橋3-4-12
電 話 大阪(06)981-2980番
974-7715番

堺店 堺市西湊町2-1-5
電話 0722 (41) 2144 番
美原店 南河内郡美原町大保 213-1
電話 0723 (62) 3315 番

東大阪市足代北1-12(近鉄布施駅5分)
電話大阪(06)783-0131番
社長室 電話大阪(06)781-2286番